

후국일 분석서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오 르 비
후 국 일
김 민 수

[인강 ~~썬~~내]

석

<http://class.orbi.kr/group/153/>

[현강 ~~썬~~내]

1. 강남석 후국일 ~~썬~~클래스석예약~~썬~~신청~~썬~~종)

3월~~썬~~개강~~썬~~석예정~~썬~~ 10월~~썬~~썬~~썬~~석종강~~썬~~석예정

- 수요일~~썬~~후~~썬~~석시~10시~~썬~~고3 + N수)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연이라는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으로 여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 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 니체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홉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육체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

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사례를 통해 특정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따르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소개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17. <보기>에 대해 윗글의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마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에 마을 책임자인 A 씨는 주민들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 B 씨의 친구는 돈을 노리고 B 씨에게 접근하여 그를 위하는 척하다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B 씨를 배신했다. 이후 B 씨는 살던 도시를 등지고 깊은 산 속에 숨어 살았다. 그러나 산 속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여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 C 씨는 어린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남녀의 유별(有別)을 중시하는 도덕의식을 과도하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녀 간의 사랑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① 홉스: A 씨가 책임자로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싸우는 상황을 보니 자연 상태에서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군.
- ② 홉스: A 씨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보다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 ③ 루소: B 씨가 산 속에서의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주는군.
- ④ 루소: B 씨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⑤ 니체: C 씨가 도덕을 바탕으로 아들의 본능을 과도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아들은 성인이 되어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넘치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홉스와 루소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자연 개념을 구축하였다.
- ② 홉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국가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이 완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③ 홉스는 자연보다 인간의 문명에, 루소는 인간의 문명보다 자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였다.
- ④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 홉스는 자연을 악한 것으로, 루소는 자연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자연 그 자체를 간과하였다.
- ⑤ 자연이 지닌 긍정적 가치에 대해 홉스는 인간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루소는 인간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규정하였다.

19. ㉡에 대한 '니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어 비롯된 결과이다.
- ② ㉡는 인간이 자연을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
- ③ ㉡는 도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④ ㉡는 끊임없는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 ⑤ ㉡는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 윗글과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데카르트와 메를르 폰티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라고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을 가진 '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취했다. 반면 메를르 폰티는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므로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몸'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겼다.

- ① 니체와 데카르트는 모두 이분법적 관점으로 독립적 실체인 '몸' 개념을 설명하고 있군.
- ② 니체와 메를르 폰티는 모두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군.
- ③ 데카르트는 니체와 달리, 인간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군.
- ④ 메를르 폰티는 니체와 달리, '작은 이성'이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⑤ 니체는 메를르 폰티와 달리, '큰 이성'이라는 개념이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을 우위에 두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군.

서구에서 **자연**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개념에는 자연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태나 특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연이라는 개념에 부여되는 의미는 철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했는데, 근대에 흄스와 루소는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였다.**

흄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흄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이 보여주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혹한 싸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이기주의자가 되어 결국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자의적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루소는 인간이 문명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연을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위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루소는 인간 욕망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 이 때문에 문명을 자연보다 열등한 것으로 폄하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는 감성으로 인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 왔던 인간이 문명의 출현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

① **니체는, 흄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도덕적 가치 판단에 선행하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니체가 보기에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이는 흄스의 관점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흄스가 자연이 경쟁으로 인해 빈곤할 수밖에 없다고 본 반면,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았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②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루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가 보기에 루소의 자연은 문명의 삶에 지친 인간이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일 뿐이다. 니체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문명을 떠나 자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의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는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니체의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몸'으로서의 인간에게 육체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동시에 '몸'을 '큰 이성'이라고 규정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강조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몸'이 단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성적 활동까지 통합된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니체는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활동을 배제하고 이성적 활동만을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육체의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더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1문단>

① 1문단에서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이었어요. [자연]이 소재가 되었고, 구체화된 제재는 [다양한 자연의 개념을 중심으로 -> 흄스와 루소가 주장한 철학]이었죠. 그러므로 다음 문단부터는 당연히 [흄스]와 [루소]의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를 중심으로 주장한 철학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연의 개념에 대해 흄스와 루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자연을 중심으로한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읽어줘야겠죠.

1문단 정리
-> 자연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축한 흄스와 루소

<2문단>

② 2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제시된 제재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문단이었던 것. 먼저 [흄스]에 대해서 나와요. 다만 그냥 "흄스네"가 아니라, 자연의 개념에 대한 흄스의 관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중심으로한 흄스의 철학(=주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겠죠. 그냥 [자연 <-> 문명]이 아니라,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1문단에서 제시한 [자연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 -> 흄스의 관점]이 되는 거죠.

[자연에 대한 흄스의 관점 = 부정적] -> [인간 -> 자연을 벗어나 -> 문명화된 삶에서 살아야 함]

- 1) 자연에 대한 흄스의 부정적 인식
-> [자연 = 통제 불능의 무자비한 경쟁 상태 /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삶 = 잔혹성, 폭력성 / 인간 -> 자연에서 혹독한 싸움 -> 이기주의자 -> 폭력이 난무]
- 2)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흄스의 주장
-> [자연에서 벗어나야 함] -> [개인의 자의적 권리 포기 ->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 국가 건립 주장 = 문명화된 삶]

2문단 정리
-> 흄스의 주장 = [인간 -> 자연(=부정적) -> 문명화된 삶]

<3문단>

③ 2문단에서 흄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3문단에서는 [루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죠. 역시나 "그냥 루소네"가 아니라, [자연의 개념]에 대한 루소의 관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중심으로한 루소의 철학(=주장)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또한 이제부터는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루소 <-> 흄스]를 비교해줬다면 조금 더 중요한 흐름들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문명에 대한 비판 -> 자연에 대한 흄스의 관점 = 긍정적] -> [인간 -> 문명을 벗어나 ->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

- 1) 문명에 대한 흄스의 부정적 인식 -> 자연에 대한 흄스의 긍정적 인식
-> [문명 =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 부정적 / 문명에서의 삶 = 위선적, 퇴폐적] -> [자연 =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전원] -> [문명 < 자연]
- 2)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루소의 주장
-> [문명에서의 삶을 벗어나야 함] ->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 = 이상적인 인간]

3문단 정리
-> 루소의 주장 = [인간 -> 문명(=부정적) -> 자연(=긍정적)]

<4문단>

④ 3문단까지해서 1문단에서 제시한 제재들에 대해서 모두 다루었고, 4문단부터는 [흄스와 루소를 비판한 니체]의 주장이 나오죠. 앞과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연의 개념]에 대한 니체의 관점은 어떠한지, 그것을 중심으로한 니체의 주장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흄스와 루소를 비판했는지를 파악해주면 되겠죠. 먼저 니체가 흄스와 루소를 비판했음을 제시하고, [자연의 개념]에 대한 니체의 관점을 먼저 제시했어요.

[흄스와 루소를 비판한 니체의 주장 + 자연에 대한 니체의 관점 -> 흄스와의 차이점]

- 1) 흄스와 루소는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자연을 규정함 -> 니체는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함
 - 2) [니체 : 자연 = 경쟁 -> 자연이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움] <-> [흄스 : 자연 = 경쟁 -> 자연이 빈곤함]
- ② 자연의 개념에 대한 니체의 주장을 제시한 후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죠. 이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 앞서 니체가 비판한 [도덕적 가치 판단 -> 자연 규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 축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인간 ->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야 함 -> 루소의 관점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흐름이었죠.

[니체 ->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에 대한 비판 ->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 -> 니체와의 차이점]

- 1)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 -> 인간이 자연을 규정, 재단 -> 활력이 억압, 축소 ->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
- 2) [니체 :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 삶을 고양하는 것] <-> [루소 : (니체가 보기에) 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미화된 자연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것]

4문단 정리
-> 흄스와 루소의 주장을 비판한 니체의 주장 = [자연 그 자체를 규정 -> 인간 ->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 = 삶의 고양]

<5문단>

⑤ 4문단에서 니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 삶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5문단에서는 그러한 [삶의 고양]을 위해 니체가 주장한 [몸]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단이었어요. 즉 [니체가 주장한 몸의 개념 -> 삶의 고양]의 흐름인 거였고, 여러분은 5문단을 읽으면서 [몸]에 대한 니체의 주장이 왜 제시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니체 -> 몸의 개념 -> 삶의 고양 =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 1) 이성만을 중시했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거부 ->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간의 육체에 주목
- 2) 그러나 이런 관점이 이성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의 개념 제시
- 3) 그러한 몸의 개념을 통해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육체 활동이 지닌 활력을 다시 찾아 -> [고양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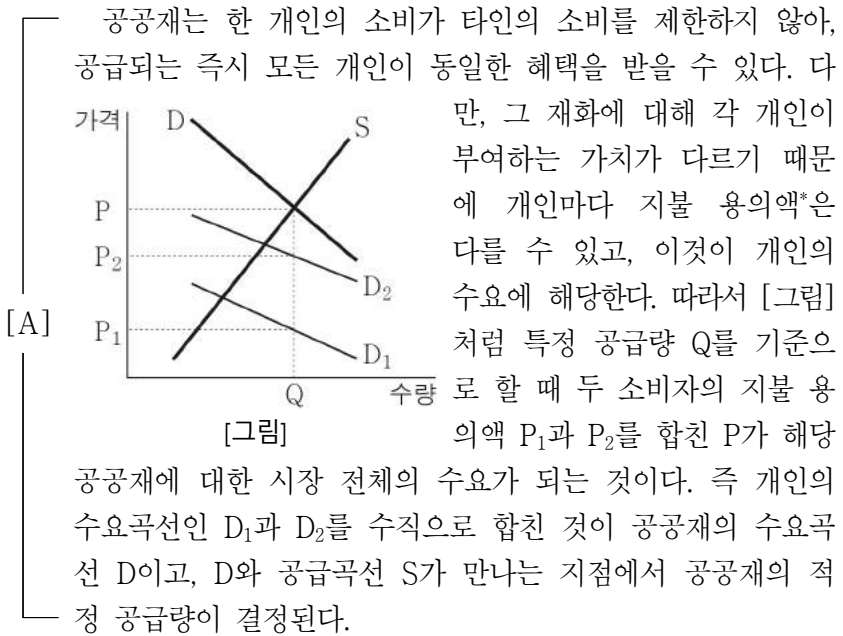
5문단 정리
-> 니체의 주장 = [몸의 개념 제시 -> 자연의 일부로 돌아감 = 고양된 인간]

전체 구조 잡기

- 1문단 - 자연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의 관점 -> 흄스와 루소의 철학
- 2문단 - 흄스의 자연관 -> 그러한 자연관을 중심으로한 흄스의 주장
- 3문단 - 루소의 자연관 -> 그러한 자연관을 중심으로한 루소의 주장
- 4문단 - 흄스와 루소의 자연관에 대한 니체의 비판 -> 니체의 자연관 + 니체의 주장
- 5문단 - 니체의 주장에서 [몸]의 개념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다.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불 용의액*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 P1과 P2를 합친 P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수요곡선인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곡선 D이고, D와 공급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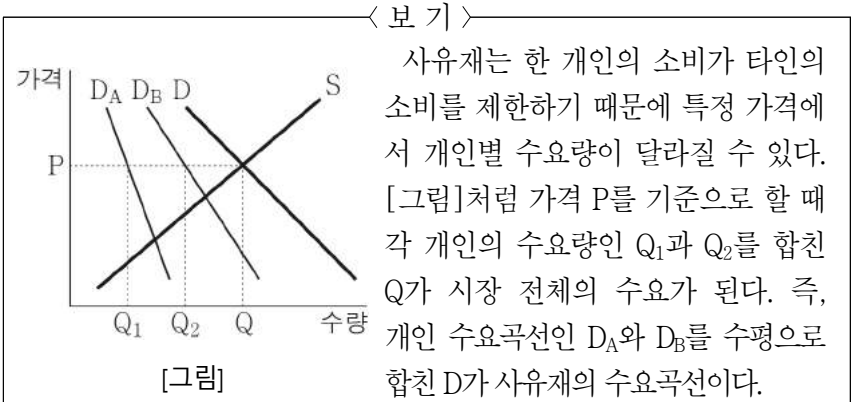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00만 원이라고 하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

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불 용의액: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21.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합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즉, 개인 수요곡선인 DA와 DB를 수평으로 합친 D가 사유재의 수요곡선이다.

*단,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으며,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함.

- ①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1의 수요자와 D2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②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의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 ④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D는 위쪽으로, <보기>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⑤ [A]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보기>의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2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②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늘어난다.
- ③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C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④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 ⑤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23.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추가 자료이다. ㉠을 <보기>에 적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

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 도서관과 공공 병원 중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때 각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갑’은 공공 도서관에 30만 원, ‘을’은 공공 병원에 40만 원, ‘병’은 공공 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갑’이 없더라도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② ‘을’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을’은 중추적 사람이다.
- ③ ‘병’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④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 ⑤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24.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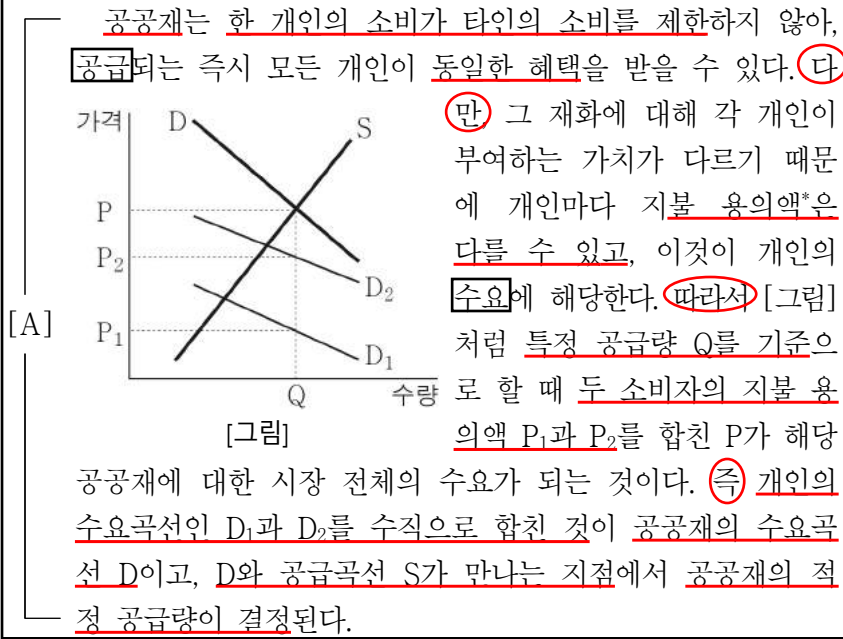
- ①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②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 ③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④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책정된다.

25.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말다툼 끝에 싸움이 일어났다.
- ②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③ 자명종 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 ④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거품이 일어났다.
- ⑤ 맛있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일어났다.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a)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부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00만 원이라고 하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부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부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추**

<1문단>
 ① 1문단에서 핵심 제재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먼저 [공공재]에 대해 정의하고, 그러한 공공재는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함을 말했죠.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된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가 이 글의 핵심 제재였어요. [Q -> A]의 글이죠. 즉 이 글은 [공공재의 적정량이 정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글이 되겠죠. 다만 이런 [Q -> A]의 글의 구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질문을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먼저 [정의, 사례]등을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개념]을 먼저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Q -> A 구조]
 -> [정의 or 사례 -> Q로 구체화 -> A를 위해 필요한 선행 개념 설명 -> A제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A를 위해 필요한 선행 개념]이 제시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한 개념이 왜 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Q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Q를 기억하면서 읽지만 읽다보면 세부 내용에 매몰되어 왜 그런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늘 내가 어떤 부분을 읽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왜 제시되고 있는지, 즉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1문단 정리
 -> [공공재는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함 ->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2문단>
 ① 2문단에서 [재화의 수요량, 공급량]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제시되죠. 풀지 말고 [공공재의 적정량의 결정]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곡선 &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 ->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는 것이고, 1문단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② ①까지는 잘 파악하면서 대부분 읽어줍니다. 다만 그 뒤에 내용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그로 인해 3문단의 그래프가 왜 제시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결정? ->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까지 앞에서 제시를 한 후 그 다음에는 [수요]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한 거죠. 즉 [개인의 수요 곡선의 합 -> 시장의 수요 곡선 -> 공급 곡선과 만나는 지점 -> 적정 공급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 가정을 제시하죠. 따라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2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가능성이 크겠죠.

2문단 정리
 -> 공공재를 포함한 일반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되는 원리 + 시장의 수요는 개인의 수요의 합으로 결정 됨

<3문단>
 ① 2문단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3문단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면 글이 떠버리게 돼요. 3문단은 2문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가정 =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는 부분이죠. 2문단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도 이야기했다면 3문단에서는 [공공재]로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공공재의 적정량]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문단에서 제시한 [개인의 수요의 합 -> 시장의 수요 곡선 -> 이러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 적정 공급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② 3문단에서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왜 제시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요. 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공공재]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설명할까요? 그래요. 결국은 [개인의 수요 곡선의 합 = 시장의 수요 곡선 -> 공급 곡선과 만나는 지점 -> 적정 공급량이 됨]을 말하기 위한 선행 개념이기 때문이죠. 즉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음 =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급됨 -> 다만 그러한 재화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은 다름 -> 따라서 특정 공급량에서 개인별 지불 용의액이 다름 -> 그러한 것이 개인의 수요임]을 설명해야만 [그러한 개인별 수요를 합친 것이 시장의 수요가 됨 ->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더해준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고 ->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적정 공급량이 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했어야 21번을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았겠죠. 즉 [공공재 <-> 사유재]의 그래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21번 문제였으니까요. 그러한 그래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공공재와 사유재의 공급과 수요에서의 특성 차이로 인한 거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공공재]
 1)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제한X -> 모두가 동일한 혜택
 2) 그러므로 "특정 공급량"에서 -> "개인의 지불 용의액=지불할 가격"이 달라짐
 3)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됨

[사유재]
 1)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제한O -> 개인별로 다른 혜택
 2) 그러므로 "특정 가격"에서 -> "개인의 수요량"이 달라짐
 3)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됨

3문단 정리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되는 원리 + 공공재의 시장의 수요는 개인의 수요의 합으로 결정 됨(=사례를 통한 2문단의 구체화)

<4문단>
 ① 3문단까지 해서 1문단에서 던진 핵심 제재에 대한 설명이 끝났죠. 4문단부터는 글의 흐름이 변하는 부분이 되죠. 3문단까지해서 공공재의 적정량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뒤 4문단부터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 적정량이 결정되지 않아,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즉 [1~3문단 : Q->A] -> [4문단 : P->S]와 같은 구조로 이어져있는 거죠. 다만 단순히 [P->S] 구조라고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P->S]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제점] 자체에만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니까요. 즉 [P의 원인이나 배경 -> P -> S]에서 단순히 P가 아니라, P의 원인이나 배경에 집중해서 S가 그러한 원인이나 배경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집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② 4문단에서의 문제점은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죠. 해결 방안인 [클라크 조세 방식]은 그러한 원인인 [개인의 지불 용의액 파악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니까요. 실제로 지문에서 설명된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을 보면 [개인의 선호도 -> 공급 여부 결정]의 절차를 따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진실되게 표출되기를 유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클라크의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할 세금의 총액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다들 개인의 선호도를 속여 세금을 낮게 내려고 할 거니까요. ALL OF THEM. 따라서 다음 문단부터는 아마도 그러한 클라크의 조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1) P의 원인 : 공공재에 대한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X ->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X
 2) P :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3) S : 클라크의 조세 방식
 -> [개인의 지불할 세금 = 비용 부담금 + 추가 세금] =/=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
 ->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밝히게 유도 -> 공급 여부를 결정]의 절차를 따름

4문단 정리
 -> 공공재의 적정량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인 클라크의 조세 방식

<5문단>
 ① 4문단에서 [공공재의 적정량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해결책인 클라크의 조세 방식]을 제시한 후에 5문단부터는 ㉡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5문단을 읽으면서 4문단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끌어와서 이해해줄 수 있으면 좋았겠죠.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일반화된 정의나 설명 + 관련된 예시]로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수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수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불 용의액: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전체 구조 잡기

1문단 -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2문단 -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들의 적정량이 정해지는지는 원리

3문단 - 2문단의 구체화

4문단 - 공공재의 적정량의 결정에서의 문제점 -> 해결책인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

5문단 - ㉠을 통해 살펴보는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

6문단 - ㉠을 통해 살펴보는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

-> 개인이 자신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는 이유

많으므로 풀지 말고 뒤에 예시를 통해서 앞의 설명을 이해해주는 것도 독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② 결국 길지만 ㉠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총추적 사람 -> 비용 분담금 + 추가 세금]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앞 문단에서 제시한 [개인의 선호도(지불 용의액) -> 공급 여부 결정]의 절차를 따르는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이 될 거구요. 제시된 예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차근 차근 정리해봅시다.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

1) [교량 건설 비용 600만원] <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 합 800만원] = [A = 500 + B = 200 + C = 100]
->교량이 건설될 수 있음

2) 공공재의 구입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 -> A/B/C 각각 200만원씩 분담

3) [개인의 순이익] >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 -> 추가 세금 지불O (A)
[개인의 순이익] <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 -> 추가 세금 지불X (B/C)
[순이익 = 지불 용의액 - 비용 분담금]

4) A와 같이 공급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 [총추적 사람] -> [비용 분담금 + 추가적인 세금]을 냄.
-> 따라서 A는 [200(비용분담금) + 100(C의 손실) = 3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됨.
-> B와 C는 비용 분담금 200만원씩의 세금만 내게 됨.

③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할 것은 이러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아마 다음 문단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울 수밖에 없을 거구요.

5문단 정리

->㉠을 통해 살펴본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

<6문단>

① 5문단에서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고, 6문단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죠.

[교량에 대한 선호도 조사 -> A가 개인의 자신의 지불 용의액(=선호도)를 속인다고 가정]

1)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 ->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 있음 -> 순이익X

2)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 -> 자신이 내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음(나머지 개인의 순수실이 추가 세금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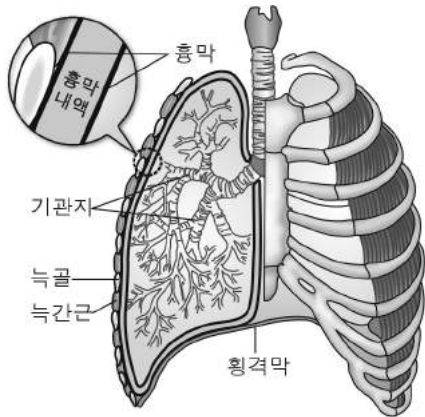
->따라서 A가 굳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음

6문단 정리

-> ㉠을 통해 살펴본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 -> 개인이 자신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는 이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 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간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



[그림]

한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공기주머니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흉막과 흉막 사이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 붙어 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차 있으므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다.

흉막 내압은 흉막강 속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흉곽벽의 탄성 반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되어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 폐는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부터 기도를 거쳐 대기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대기압: 대기압 아래의 기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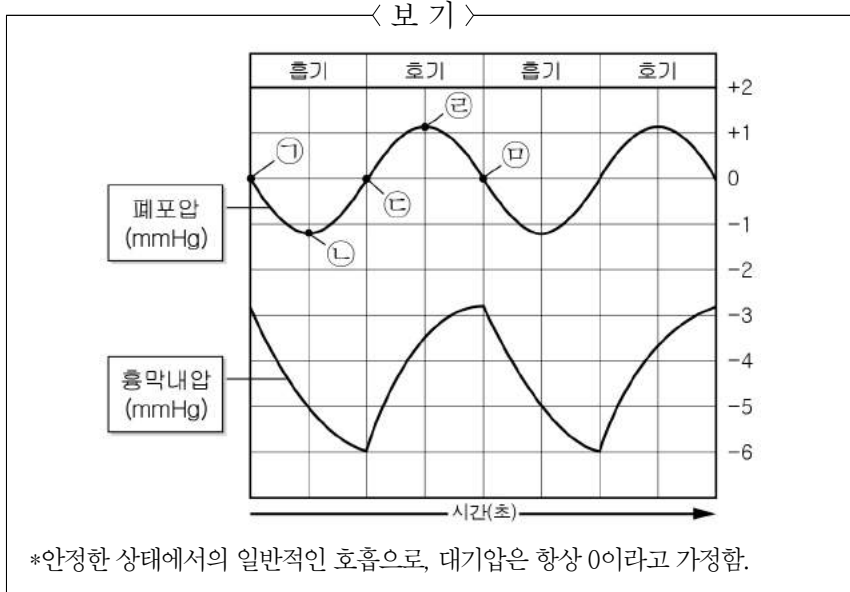
32. 윗글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호흡 과정에서 폐의 부피 변화는 어떠한가?
- ② 호흡의 정의와 호흡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③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원리는 무엇인가?
- ④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가?
- ⑤ 호흡과 관련된 압력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33. ㉠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폐는 두 개의 흉막 중 안쪽 흉막과 붙어 있다.
- ② 폐는 흉곽 내에 위치하며 흉막강에 둘러싸여 있다.
- ③ 폐포에서 교환된 이산화 탄소는 기관지를 거쳐 이동한다.
- ④ 폐는 뼈와 늑간근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호된다.
- ⑤ 폐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체외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진다.

※ <보기>는 흡기와 호기에서의 폐포압과 흉막 내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4번과 35번 물음에 답하시오.



34.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② ㉡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 ③ ㉢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④ ㉣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 ⑤ ㉤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으로, ㉢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폐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35. ㉢에서 ㉣로 호흡이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횡격막은 이완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② 횡격막은 이완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③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 ④ 횡격막은 수축되어 아래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인다.
 - ⑤ 횡격막은 수축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래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3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례]

A 씨는 외상으로 인해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흉막 내압이 변화하다가, 현재는 외부에서 흉막강으로의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치료가 필요하다.

*단, 폐의 손상 없이 흉곽벽이 찢린 경우로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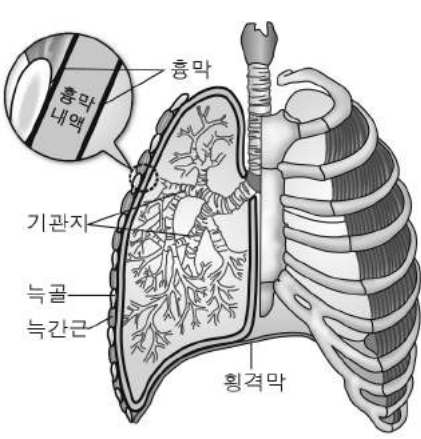
[학생의 반응]

현재 A 씨는 흉막 내압이 (㉡)과 같아졌고 폐는 외상이 생기기 전보다 쪼그라들었겠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 난 부위를 막고 흉막강 속 공기를 제거하여 (㉣)을 증가시키면 될 것 같아.

- | | | |
|---|-------|------|
| | ㉡ | ㉣ |
| ① | 대기압 | 경폐압 |
| ② | 대기압 | 아대기압 |
| ③ | 탄성 반동 | 아대기압 |
| ④ | 탄성 반동 | 경폐압 |
| ⑤ | 경폐압 | 대기압 |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물질대사 결과 발생한 이산화 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호흡**이라 한다. 이때 공기가 체외에서 폐로 이동하는 것을 **흡기**, 폐에서 체외로 이동하는 것을 **호기**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은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포로 들어간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한 상태가 되며, 이물질이 걸러진 상태가 된다. 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폐포는 폐 속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공기주머니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림]

기관지와 폐포 등으로 구성된 폐는, [그림]에서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흉곽 내에 위치한다. 흉곽은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흉막강은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흉막과 흉막 사이는 흉막 내액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 바깥쪽 흉막은 흉곽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막 내액은 결국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에 의해 붙어 있는 두 장의 얇은 유리판이 물의 응집력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렇다면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용기의 부피 증가는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용기의 부피 감소는 기체의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폐포 안의 기체 압력을 폐포압이라고 하고 체외의 공기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흡기와 호기 동안 폐의 부피는 변화하고, 이 변화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을 변화시켜 폐 안팎으로 공기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폐의 부피 변화에는 탄성 반동과 경폐압, 흉막 내압 등이 작용한다. 먼저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성 반동이란 변형을 주고 있는 힘에 반발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폐는 마치 풍선처럼 줄어들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 반동을 가지고 있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 그런데 이때에도 폐는 항상 공기로 차 있으므로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도 함께 작용한다. 이때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폐는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경폐압은 폐포압에서 흉막 내압을 뺀 것이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 경폐압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 반동과 경폐압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폐의 부피가 변화되는 것이다.

흉막 내압은 흉막강 속 흉막 내액의 압력을 말하는데 항상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바깥쪽 흉막에 밀착된 흉곽벽은, 대기압이 인체에 미치는 힘의 반대 방향인 몸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흉곽벽의 탄성 반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흉곽벽의 탄성 반동은 안쪽 흉막에 밀착된 폐의 탄성 반동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그 결과 폐와 흉곽벽은 서로 살짝 떨어진 상태가 되어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 흉막강의 부피가 변화하면 흉막 내압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1문단>

① 먼저 [호흡]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러한 호흡의 과정에서 [흡기 / 호기]가 발생함을 제시했어요. 늘 말하지만 단순히 "호흡이네, 흡기, 호기네"가 아니라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제재에 주목해야해요. 결국 1문단에서 구체화된 제재는 그러한 호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공기의 흐름]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 문단부터는 어떻게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흡기와 호기와 같은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글이 되겠죠.

1문단 정리

-> [호흡의 과정 -> 흡기와 호기 ->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3문단>

①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흡기, 호기와 같은 공기의 흐름]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몇 번이나 나왔던 글의 구조죠. 1문단에서 핵심 제재를 던지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개념들을 설명하는 구조요. 따라서 2문단은 이러한 호흡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은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란 걸 기억해두셔야 겠죠.

② 2문단에서는 먼저 [호흡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데 [코와 입 -> 기관 -> 기관지 -> 폐포]와 같이 유입된 공기의 흐름을 제시하고 [기관과 기관지 / 폐포]등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죠.

- 1)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짐, 수증기가 첨가되어 습윤해짐, 이물질이 걸러짐 -> 공기가 폐포를 손상X
- 2) 폐포는 기관지 맨 끝에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공기주머니 ->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

③ 2문단에서 [기관 -> 기관지 -> 폐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3문단에서는 [기관지 + 폐포 = 폐], [흉곽], [흉막강], [흉막 내액]의 구성 요소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것은 1문단에서 구체화된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개념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한 문장씩 맞춰가면서 읽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 1) [폐 = 기관지 + 폐포] ->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로 -> [흉곽] 내에 위치
 - 2) [흉곽 = 늑골을 비롯한 뼈 + 늑간근 등의 근육] -> 폐를 보호하는 역할 /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 됨
 - 3) [흉막강 = (얇은 세포층인 두 개의 흉막)으로 완전히 닫힌 주머니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 -> 그러한 흉막강을 이루는 두 개의 흉막 사이에는 [흉막 내액]이 채워져 있음
 - 4) [흉막 내액] -> 폐와 흉곽벽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역할을 함
- > 비유를 통해 이해해주시면 되겠죠. [두 장의 유리판 = 두 개의 흉막 / 물 = 흉막 내액]과 같이요. 일반화된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는지 확인해주고 [예시 -> 설명]과 같이 거꾸로 이해해주시는 것도 좋은 독해 방법입니다.

③ 아마 위와 같이 3문단을 읽으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글이 뜨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험이 끝난 후에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내용이죠. 수험장에서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글이 뜨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을 빠르게 읽어가면 당연히 글이 들 수밖에 없고, 정보량이 많게 느껴지죠. 수험장에서 정보량이 많이 제시되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1) 한 문장씩 찬찬히 읽어주되 제시되는 개념간의 관계를 묶어서 생각하기

->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정보량이 많이 줍니다. 즉 여기서는 단순히 [폐 / 흉곽 / 흉막강 / 흉막 내액]이 아니라, [폐를 둘러싼 것이 흉막강이고, 그 흉막강이 흉곽 내에 위치, 폐를 둘러싼 흉막강은 두 개의 흉막으로 이루어져있고 그러한 두 개의 흉막 사이에 있는 게 흉막 내액이구나]와 같이 관계를 묶어서 파악해주는 거죠.

- 2) 만약 수험장에서 해당 부분이 처리가 안 된다면 [왜 이런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가?]라고 파악하고 넘어가기

-> 여기서는 결국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 개념인 [호흡계의 구성 요소]가 제시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물어보면 돌아와서 정보를 확인해줬으면 됐구요.

2~3문단 정리

->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 -> 공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본 [호흡계의 구성 요소]

<4문단>

③ 3문단까지 필요한 선행 개념인 [호흡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4문단부터는 본격적으로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다만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법칙이나 개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왜 마지막 문장에서와 같은 인과가 발생하는지 모르게 되고, 뒷 문단은 다 떠버리게 돼요.

- 1) 보일의 법칙 -> [부피 변화 -> 압력 변화]
- 2) [폐포압과 대기압 +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 -> 따라서 폐포압과 대기압의 차이로 인해 공기의 흐름 발생]
- 3) [흡기와 호기 동안 -> 폐의 "부피" 변화 -> 보일의 법칙 -> 폐포"압"의 변화 ->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가 발생할 것 -> 공기의 흐름]

인 거죠. [다시 말해]를 기준으로 마지막 문장에서 제시되는 인과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러한 인과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보일의 법칙 + 폐포압과 대기압의 개념 + 일반적인 압력 차이에 따른 공기의 흐름]을 설명한 뒤 마지막 문장에서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인과에 대해서 정리해준 거죠.

4문단 정리

->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5문단>

① 5문단에서는 [탄성 반동 / 경폐압 / 흉막 내압 -> 폐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러한 내용을 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래요. 4문단에서 호흡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폐의 부피 변화]로부터 시작했죠. 따라서 그러한 폐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는 문단이 이어진 거죠. 5문단 역시 많이 어려워요. 개념간의 관계를 묶어주면서 이해해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봅시다.

[흉막 내압 변화 -> 경폐압 변화 -> 탄성 반동과 차이가 생김 -> 폐의 부피가 변화]

와 같이 정리되겠죠. 핵심은 [폐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탄성 반동) = (경폐압) = (폐포압 - 흉막내압)]임을 설명하고, 이 상태에서 [흉막 내압]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인과적으로 [폐의 부피]도 변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5문단 정리

-> 폐의 부피 변화하는 탄성 반동, 경폐압, 흉막 내압

<6문단>

① 6문단은 [흉막 내압]에 관해서 설명하는 군요. 가 아니죠. 5문단에서 [폐의 부피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시발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흉막 내압이었고, 그러한 흉막 내압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내용 2가지였죠. [흉막 내압은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변화], [근육의 움직임 -> 흉막강의 부피 변화 -> 흉막 내압 변화]정도가 되겠네요. 또한 6문단까지 잘 읽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제시된 개념간의 인과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는 옆에 적으면서 정리를 해주었구요. 머리로 처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흉막강의 부피 변화 -> 흉막 내압의 변화 -> 경폐압의 변화 -> 경폐압과 탄성 반동의 차이 -> 폐의 부피 변화 -> 보일의 법칙에 따라 폐포압 변화 -> 대기압과의 차이 발생 -> 공기의 흐름]

위와 같은 내용이 결국 4~6문단의 걸쳐서 말한 [폐와 대기의 압력 차이 ->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가 되겠죠.)

6문단 정리

-> [흉막강의 부피 변화 -> 아대기압의 범위에서 흉막 내압 변화]

①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흡기**는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늑간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 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경폐압이** 증가하고 이 힘이 폐의 **탄성 반동**보다 커져 **폐는** 더욱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약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후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흡기 끝에는 공기 흐름이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흉막 내압, 경폐압** 등의 변화로 인해 **폐의 부피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 **공기는 폐포로부터** 기도를 거쳐 대기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7문단>

① 드디어 흡기와 호기의 과정이 나오네요. 길었어. 1문단에서 [폐와 대기의 압력차이 -> 공기의 흐름]을 던지고 2~3문단에서 그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호흡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 4~6문단에서 관련된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7문단부터 그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앞 문단들에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왔다면 어려움없이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인과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살표나, 밑줄을 치면서 넘어가게 되겠죠.

[흡기의 과정]

- 1) 공기의 흐름이 없던 상태 -> [경폐압 = 탄성 반동], [폐포압 = 대기압]
- 2) 흉곽이 확장 -> 흉막강의 부피가 증가 -> 흉막 내압은 낮아짐
- 3) [경폐압 = 폐포압 - 흉막 내압]이므로 흉막 내압이 낮아지면 -> 경폐압이 증가함
- 4) [증가한 경폐압 > 탄성 반동] -> [폐는 확장 = 즉 폐의 "부피"가 증가함] -> [보일에 법칙에 따라 폐포"압" 감소]
- 5) [폐포압 < 대기압]이므로 ->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됨 -> 폐포의 부피가 커질수록 ->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증가하게 됨
- 6) 그런데 폐포는 확장의 한계가 있음 ->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가 되고 다시 증가 -> [폐포압 = 대기압]이 되게 되고 -> 흡기 끝에는 [공기의 흐름X + 폐의 부피는 최대치]가 됨
- 7)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 반대로 작용(=흉곽이 축소하면서 -> 반대의 인과가 발생할 것)

② 결국 7문단은 앞에서 설명한 개념들의 인과를 통해서 [폐의 부피 변화 -> 폐와 대기압의 차이 발생 -> 공기의 흐름 발생]을 설명하는 문단이었던거. 그게 흡기와 호기에 해당하는 거구요.)

7문단 정리

->2~6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흡기와 호기의 과정]

전체 구조 잡기

- 1문단 - [폐와 대기압의 차이 -> 공기의 흐름 발생]
- 2~3문단 - 호흡계의 구성 요소 설명
- 4~6문단 -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 원리 설명
- 7문단 - 2~6문단을 바탕으로 살펴본 흡기와 호기의 과정

*아대기압: 대기압 아래의 기압.

“아! 아즈머니슈?”

컴컴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 말을 건다.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르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삼살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준이택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

“수고랄 거 있습니까. 애쓴 보람 없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 마세요. 저기 가서 자리만 잡히면 곧 편지가 올 거니까 따라가서 편안히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집 살림을 제가 맡아보는 듯한 수작이다.

“그런데 하꼬방*은 꼭 헐라는 건지요?”

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정이라 말을 돌렸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뭇기구 가지구려.”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필준이택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지금 말눈치 보아서는 당장 헐어 가라는 것은 아닌 모양이니 무슨 도리를 차리자면, 이 사람을 덧들여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성을 높여 사정을 하였다.

“혼잣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작자만 나서면 팔아 버릴까 하는데…….”

“글쎄…….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

역시 금시로 헐리지는 않을 것을 알고 하는 말눈치 같다.

“하꼬방만 터값 합쳐 십만 원에 사구 술 하나 걸었죠. 그 외에 그릇 나부렁이까지 끼서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

동네 집에서 쫓겨 나가는 사람들이 반의 샅에도 찢절매는 꼴을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헐가로 흥정을 붙여서 저희 동무들에게 넘기는 것이었지마는, 하여간 그런 자국에 소개도 곧잘 하는 박일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꺼낸 것이었다.

“아 언제 헐릴지 모르는 걸 십오만이라니 어렵두 없습니다.

게다가 ㉡ 그까짓것 붙들구 앉았어야 세금은 점점 오르구…….”

세금 노래를 꺼내는 것을 보니, 너 같은 빨갱이도 그런 줄이나 아는구나 하고 필준이택은 속으로 웃자니까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

하고 씩 웃는다. 필준이 내외가 걸어붙이고 나서서 하꼬방 하나로 다섯 식구가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고, 저희는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땡땡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제가 사겠다는 말도 실없는 소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하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인민군에게 끌려갔던 필준은 겨우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비밀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않아 평소 하꼬방을 탐내던 박일성 반장 내외가 이를 눈치 채고, 반장택은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필준이택(진숙 어머니)의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다.

“지하실은 어디야?”

이때까지 다다미를 밟는 투박스러운 구둣발자국 소리밖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던 캄캄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앞을 우뚝 막아서며 그 거센 목소리로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다.

“이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지하실이란 말에 남편의 얼굴이 또 떠오르면서 속이 떨렸다.

“마루 밑에 없으면 다다미 밑에라도 봤겠지?”

진숙 어머니는 다시 머리가 어쩔하였다.

‘하누님 맙시사!’

하고 속으로 빌었다. 전신의 기운이 쪽 빠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것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섰다.

“여보 이리 오슈.”

마루 끝에서 치어다보고 섰는 병정에게 소리를 치고 내무서원이 앞장을 서 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옆의 빈자리를 구둣발로 걸어차며

“여길 열어 봐.”

하고 호령을 한다.

뒤따라 들어온 진숙 어머니가 요를 걷어치우고 다다미를 들어 내려니까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반장 여편네도 머리맡으로 가서 거든다. 다다미를 들어내고 널판지를 벗긴 뒤에 회중전등을 비춰 보아야 별 수는 없었다. ㉢ 김이 빠져 머쓱해진 내무서원은 여전히 잠자코 온돌방을 거쳐 삼조 방으로 뚜벅뚜벅 건너간다.

아이들은 이 법석에도 세상 모르고 곤드라져 숨소리 없이 잔다.

인제는 될 대로 되라고 기진맥진한 진숙 어머니는 등신처럼 멀거니 섰기만 하다가 반장 여편네가

“여보 그래두 어떻게 됐는지 가 봅시다.”

하고 등을 미는 바람에, 온돌방으로 들어서니 벌써 남편의 기어 나오는 허연 그림자가 눈에 힐끗 띈다. ㉣ 진숙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첼그럭…….

수갑을 채우는 소리다. 다음 순간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앞장을 서고 내무서원 병정 반장 여편네…… 아무 소리도 없이 줄달아 나온다. 밖에 나와서도 반장 여편네는 진숙 어머니의 옆을 지날 때 외면을 하였다.

얼이 빠져 섰던 진숙 어머니는 무슨 새 힘이 났는지 쭈르르 뛰어나가 남편 옆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입이 벌어지지 않을 뿐이다. 다만 현관에서 고무신을 바로 놓아 주었다.

㉤ “아이들하구 잘 있어!”

내무서원이 문을 열어 주니까 필준이는 멍칫하고 얼굴을 돌리며 한마디 던지듯이 하고 나간다.

“안녕히 가세요.”

반장 여편네가 꼬박 인사를 하고 문밖에 나선 진숙 어머니에게는 알은체도 없이 달음질을 쳐서 저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숙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진숙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를 곱뜨려 스러질 때까지 병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멀거니 섰었다. 눈에는 눈물 한 점 스며나지 않았다. 대문도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온 진숙 어머니는 자는 아이들 옆에 쓰러지며 고개를 파묻고 비로소 목이 메여 울음이 복받쳤다. 한 십 분은 그대로 인사 정신 없이 울었으리라. 어머니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나자 진숙 어머니는 몸을 어떻게 지향할 수가 없는 듯이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니—”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잠이 덜 깨어 멀거니 앉았던 아이들은 혼이 나서 어머니가 미쳤다? 하고 덜덜 떨고 있다.

—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

*하꼬방: 판잣집을 뜻하는 일본어.

2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은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참혹한 전투 장면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인해 개인의 삶이 위협 받고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된다.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비극적 삶이 부각되고 있다.

- ① 하꼬방 값을 흥정하기 위해 ‘언성을 녹여 사정’하는 진숙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인물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인민군 치하에서 ‘땡땡거리고’ 사는 박일성을 보며 ‘속으로 웃’는 진숙 어머니를 통해 혼란한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필준을 찾는 ‘거센 목소리’가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 놓는’ 장면에서 인물의 삶이 위협 받는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④ ‘다다미를 들어내’는 진숙 어머니를 거들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반장 여편네를 통해 부정적인 인간상을 엿볼 수 있군.
- ⑤ 진숙 어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공동체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준이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박일성은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준이택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내무서원은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멧쩍어 하면서도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다.
- ④ ㉣: 진숙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 ⑤ ㉤: 필준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다.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작은 벌레와 같이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별들은 나와
자연(自然)의 구조에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할 줄을 안다.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인상 체계나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 이미지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 것이다.

한편 이미지의 기능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을 들기도 한다. 신선감이란 어휘나 소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빚어내는 새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독자들

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렬성이란 작품 속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을 뜻한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0. (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의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필준이택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박일성은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준이택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내무서원은 자신의 예측과 다른 결과에 멧쩍어 하면서도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다.
- ④ ㉣: 진숙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다.
- ⑤ ㉤: 필준은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다.

(가)

바람이 소슬하야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溪山)이 삭막거늘
겨울이 조화 부러 백설(白雪)을 누리오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요굴이 되엿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
가없는 설경(雪景)은 다 시(詩)의 제재가 되여시니
우활(迂闊)*한 **정신(精神)**이 추위를 어이 알꼬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도라오니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ㄹ즐세고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라**
냇숫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흐고
이원의 반곡*이 이러던가 엇더흐며
무이산의 청계는 이에서 더 흐르나
화산(華山)의 한 부분은 나누자 흐거니와
이 ㉠ **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논고

< 중략 >

산조산화(山鳥山花)를 내 버즐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킨 대로 노는 몸이
공명(功名)을 생각하며 빈천(貧賤)을 설위홀가
단사표음(簞食瓢飲)을 내 분수로 여기니 일월(日月)도 한가홀사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을 슬도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아이야 사립문 닫아라 세상 알까 흐노라

- 정훈, 「용추유영가」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허유: 중국 요임금 때 은사(隱士).

*칠리탄: 중국 후한 때 엄광이 몸을 숨긴 동강의 여울.

*반곡: 중국 당나라 때 이원이 은거한 곳.

(나)

맑은 하늘 들 붉거늘 일장금(一張琴)을 빗기 안고
난간(欄干)에 기대 안자 옛 **양춘곡(陽春曲)**을 뜯은마리
엇더타 님 향흔 시름이 곡조(曲調)마다 나느니

<제1수>

시절이 하 수상하니 ㄹ음을 들 디 업다
교목(喬木)도 네 ㄹ고 신하도 그득하되
의론(議論)이 여기 저기 하니 그를 몰라 흐노라

<제3수>

송옥(宋玉)*이 ㄹ을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차가운 서리 흰 이슬은 하늘히 기운이라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ㄹ음이 업서라

<제6수>

공맹(孔孟)의 적통(嫡統)*이 ㄹ려 주자(朱子)께 다다르니
자세한 학문(學文)은 궁리(窮理) 정심(正心) 나란히 일렀네
엇더타 강서(江西) 의론(議論)*은 그를 지리(支離)타 흐던고

<제9수>

장부(丈夫)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 두려울까
일산(一山) 풍월(風月)애 즐거움이 ㄹ이 업다
내 마다* 부운(浮雲) **부귀(富貴)**를 따를 줄 이시라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君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考槃)*을 즐겨흐니
넉넉흔 술바람에 달보기야 **나 썬인가 흐노라**

<제12수>

- 장경세, 「강호연군가」 -

*송옥: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굴원의 제자.

*적통: 정식으로 대를 이은 계통.

*강서 의론: 주희와 육구연이 강서에서 논쟁함. 주자학을 비판한 강서학파를 의미함.

*마다: 싫다.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바구니를 가지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
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다.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는 모두 다 내 나물 동무들이었다.

활나물, 고사리 같은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꺾을 수가
있었다. 뱀이 무섭다고 하는 나한테 섭섭이는 부지런히 뽕순을
꺾어서 내 머리에다 갈아 꽃아 주며, 이것을 꺾고 다니면 뱀이
못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산나물을 캐러 가서는 산나물만을 찾
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뽕꼭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쫄뿌리**도 캐는 것이었다. 쫄뿌리를
캐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란 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꺾이
푸드덕 날면 깜짝들 놀라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산나물을 뜯던
그 그리운 고향엔 언제쯤 가게 될 것인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림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
음을 찢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 중략 >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채 봄은 완연히 왔는데, 내 마
음속 골짜구니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내 심경은
여태껏 춥고 방 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서 모
두가 을씨년스럽다.

시골 두메 촌에서 어머니를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을 실
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 **에덴 동산**에서 내
쫄긴 것이다.

그리고 뽕순을 머리에다 안 꺾고 다닌 탓인가, 뱀은 내게 달
려들어 슬한 나쁜 지혜를 넣어 주었다.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高射砲)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風雨亂雪)의
세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

심산(深山)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피질 대
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맛이 사람에게 있는 법이건만, 좀체 순수한 이 **산나물** 같은 사
람을 만나기란 요즘 세상엔 힘든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람
이 어디 없을까? 모두가 억세고 꼬부라지고 벌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시까지 돋쳐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 노천명, 「산나물」 -

37.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우활한 정신'은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의 '장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 ② (가)의 '내 부러워하라'와 (나)의 '나 썬인가 흐노라'에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냇숫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는, (나)의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이다.
- ④ (가)의 '공명'과 (나)의 '부귀'는 화자가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 ⑤ (가)의 '계산 경물'과 (나)의 '일산 풍월'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강호연군가」에서 강호에 은거해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수: 강호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3수: 당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③ 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9수: 성현의 학문적 정통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12수: 군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에는 고향과 인정(人情)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과 그 체험 속의 풍물들을 통해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 등을 떠올리는 것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뼈꼭채’, ‘싱아’, ‘취뿌리’ 등은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하는군.
- ③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군.
- ④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주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드러나는군.
- ⑤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 ② b는 a와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 ③ a와 b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 ④ a와 b는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 ⑤ a와 b는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嬋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이내 차라리 죽어 모르코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비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 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장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을 때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뵈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과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읊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

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낫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옥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채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A]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 왈,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와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득시지추: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43. 밑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견’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쓴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45.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16~20번]

16번 : ⑤

->거시적인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였어요. 해당 지문의 큰 흐름은 [1문단 : 자연의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다양한 관점 -> 철학자들의 철학 -> 홉스와 루소] -> [2~3문단 : 홉스&루소의 철학으로 구체화] -> [4~5문단 : 니체의 비판 & 니체의 철학]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글이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는 ⑤이 되겠네요. [자연의 개념]과 같은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홉스&루소]의 두 이론을 소개하고, [다른 관점 = 니체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한계 =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통해 규정한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①

->특정 이론이 [정립된 과정 소개 -> 역사적 의미]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②

->니체가 홉스와 루소의 이론의 한계,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례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 해결 방안 제안]이 아니라, [니체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제하는 글이었죠.

③

->특정 이론들이 만들어진 배경들X / 그 이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 다른 이론X

④

->[특정 개념의 의미, 즉 자연의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두 이론]은 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중 하나의 관점을 따른다는 게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17번 : ③

->해당 문제는 <보기>에서 드러난 상황을 각각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해당 사례가 하나의 사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루소는 [문명에 대한 비판 ->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어요. 따라서 루소는 B씨가 자연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자연 속에서의 삶이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보여주는군]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겠죠. :)

①,②

->홉스는 [자연 = 무자비한 경쟁 상태 /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잔혹한 싸움을 통해 -> 이기주의자가 됨 -> 폭력이 난무]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그로 인해 [자연 -> 문명화된 삶 = 절대 권력의 국가]를 주장했죠. 따라서 홉스는 <보기>의 A씨가 책임자로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자연이 식량을 얻으려고 싸우는 상황을 자연 상태에서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폭력이 난무하는 것으로 보겠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홉스는 <보기>의 화해의 정보다는 [절대 권력 =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적절해요.

④

->적절하죠. 루소는 [욕망 -> 문명 -> 도시의 퇴폐하고 위선적인 삶]과 같이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죠. 따라서 루소는 B씨의 친구가 B씨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삶의 일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겠죠.

⑤

->니체는 인간이 [도덕 가치 -> 인간 중심적 사고 -> 인간과 자연과 분리 ->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능을 따른 때의 활력이 억제, 축소됨 ->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했죠. 따라서 니체는 <보기>의 마지막 사례에서 C씨의 행위를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행위로 볼 것이고, 그로 인한 C씨의 아들에게 생긴 문제를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본능을 억압 -> 활력이 축소, 억압]된 것으로 인한 문제로 보겠죠. 적절해요.

18번 : ④

->㉠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즉 단순 내용 일치가 아니라, [니체 -> 루소&홉스]에 대해 비판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어야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였죠. 소거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답 선지가 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니체는 [홉스와 루소 -> 인간의 도덕 가치 판단으로 -> 자연을 규정]했음을 비판했고, [자연 그 자체를 규정]하고자 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니체의 비판에 해당하는 선지는 ④ =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기 위해 -> 홉스는 자연을 약한 것 / 루소는 자연을 선한 것 = 자연을 가치 판단을 통해 규정하면서 -> 오히려 자연 그 자체를 간과]이 되겠죠.

①

->루소는 문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했죠. 또한 니체가 비판한 것은 그러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간의 도덕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을 규정했다는 점이므로 관련이 없는 선지예요.

②

->홉스는 자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③

->가장 헛갈렸을 선지라고 생각해요. [홉스 : 자연 < 문명] <-> [루소 : 자연 > 문명]인 것은 맞죠. 다만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의 이기심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죠.

㉔

->홉스는 자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19번 : ㉔

->㉔기준으로 ㉔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묻는 문제였죠. 단순 일치로 파악하기보단 인과를 따져서 파악해주셨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 [㉔ = 인간 중심적 사고]인데, 니체는 이러한 ㉔와 관련해서 [도덕이 ->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 -> 인간이 나머지보다 우월 -> ㉔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됨 -> 인간이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 -> 자연을 대상화해서 인간과 분리 -> 자연의 일부로서 본능에 따른 활력이 축소, 억압 -> 따라서 자연의 일부로서 돌아가야 함 = 고양된 삶]을 주장했죠. 따라서 ㉔는 니체의 입장에서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일부분이었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부정적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보지,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지 않겠

㉑

->[도덕이 ->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 -> 인간이 나머지보다 우월 -> ㉔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됨]이므로 적절해요.

㉒

->[㉔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됨 -> 인간이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이므로 적절해요.

㉓

->[도덕이 ->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 -> 인간이 나머지보다 우월 -> ㉔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됨]이므로 적절해요.

㉕

->[㉔가 인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됨 -> 인간이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 -> 자연을 대상화해서 인간과 분리]이므로 적절하죠. 또한 니체는 그러한 [자연 = 경쟁 -> 풍요로움]으로 봤으므로 [끊임없이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이라는 발문 역시 적절해요.

20번 : ㉒

->[이론, 주장]등이 제시되는 글에서의 <보기> 문제 중 단골로 등장하는 <보기>문제죠. 즉 [지문 <-> <보기>]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런 <보기>를 읽으면서는 그냥 <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문에서 제시된 이론이나 주장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선지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니체는 [몸 = 이성 + 육체]라고 주장했고, <보기>에서 메를로 폰티 역시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거부하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므로 = 몸을 인간의 이성적 활동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여김]이었죠. 따라서 적절해요.

㉑

-><보기>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이분법적으로 독립적 실체인 몸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문의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아요.

㉓

->인간의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은 데카르트가 아니라 니체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㉕

->지문에 따르면 니체는 [(큰 이성 = 육체의 활동)이 전제 -> (작은 이성 = 이성)의 활동 가능]이라고 주장했고, 메를로 폰티는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 되는 (몸 = 육체 = 큰 이성)을 근본적인 것으로 여김]이므로, 니체와 메를로 폰티 모두 큰 [큰 이성 = 육체]가 감각의 최초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겠죠.

㉔

->지문에 따르면 니체가 이성적 활동만 중시하는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주장한 개념이 [(큰 이성 = 육체) + (작은 이성 =이성) = 몸]의 개념이었죠. 즉 선지에 해당하는 말로 바꾸자면 니체는 [사유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 [큰 이성 = 육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주장한 게 [큰 이성 = 육체]라는 거죠. 따라서 [사유의 속성의 마음 > 큰 이성]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큰 이성]을 주장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21~25번]

21번 : ②

->[A]와 <보기>를 비교하는 문제였죠.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결국은 [공공재 <-> 사유재]가 적정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내는 거였죠.

[공공재]

- 1)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제한X** -> 모두가 동일한 혜택
- 2) 그러므로 "**특정 공급량**"에서 -> "**개인의 지불 용의액=지불할 가격**"이 달라짐
- 3)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됨

[사유재]

- 1)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제한O** -> 개인별로 다른 혜택
- 2) 그러므로 "**특정 가격**"에서 -> "**개인의 수요량**"이 달라짐
- 3)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됨

->정답은 ②이 되겠죠. [A]의 공공재 수요자들은 모두 특정한 [Q]라는 동일한 수요량에서 **동일한 혜택**(=①)을 받는 것과는 달리 <보기> 사유재의 수요자들은 특정한 [가격]에 따라 각각 $[DA - Q1 / DB - Q2]$ 와 같이 **다른 수요량**을 가졌고, 이러한 수요량을 합친 Q가 시장의 수요라고 했어요.

③

->[A]와 <보기>에서 모두 재화 공급 적정량은 [시장의 수요 &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므로 적절하죠. 다만 [시장의 수요]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둘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④

->[A]에서는 [P1 / P2]등과 같은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더한 것이 [P]와 같은 시장의 수요이고, 그러한 개인의 수요 곡선들을 수직으로 더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라고 했죠. 반면 <보기>에서는 [Q1 / Q2]등과 같은 개인의 수요량을 더한 것이 [Q]와 같은 시장의 수요량이고, 그러한 개인의 수요 곡선들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각각 새로운 수요 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그래프에서는 위로, <보기>의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⑤

->[A]에서는 [특정한 수요량(Q) -> 개인별 지불 용의액이 다름(P1 / P2)], <보기>에서는 [특정한 가격(P) ->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Q1 / Q2)]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적절해요.

22번 : ④

->①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죠. 다만 그냥 일대일 대응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바로 답을 골라주셔야 하죠. 해당 문제는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식에서 수요자들이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례와 마지막 문단에서의 예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죠. ④이 적절하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원, 즉 낮춰서 표현하게 되면 A는 교량 건설로 인해 얻을 순이익을 잃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지불 용의액을 낮춰서 속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했구요.

①

->A가 지불 용의액을 높여서 표출한다고 해도 세금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일 필요가 없는 거구요.

②,③

->B,C는 모두 **중추적 사람이 아니므로 애초에 추가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 말은 둘다 모두 세금으로 [비용분담금]만 낸다는 거고, 따라서 B,C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낮춰서 표출한다고 해도 둘이 내야 하는 비용분담금은 변하지 않으며, 추가 세금은 전과 마찬가지로 없죠.

⑤

->B가 본래 얻을 수 있던 순이익은 0이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굳이 계산을 해보면 $[A+B+C=700] > [교량 건설 비용 = 600]$ 이므로 교량은 건설이 될 것이고 B가 본래 얻을 수 있던 순이익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순이익을 직접 계산하는 건 가장 구린 풀이가 되겠네요.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핵심 내용만 파악하면 계산이 없거나, 간단한 계산 만으로 대부분의 선지를 소거할 수 있게 내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23번 : ④

-><보기>의 조건을 잘 정리해두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뒤 선지를 소거하러 들어가야지 무작정 들어가면 고민만 합니다. 해당 <보기>문제는 17학년도 이후에 출제되기 시작한 <보기>의 유형에 해당하죠. 즉 지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거나, 간단하게 다른 소재를 구체화하는 경우죠. 즉 지문이 <보기>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에서는 1개의 공공재에 대한 클라크의 조세 부과 방안이었다면 <보기>에서는 2개의 공공재에 대한 클라크의 조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네요. 봅시다.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정답&해설

[활용 방안]

- 1) 두 공공재 중 구성원 개인들의 순이익의 합이 큰 것을 선택
- 2)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비용 부담금을 지불하게 됨 ->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냄

[사례]

- 1) 공공 도서관 - 갑(30만원) / 병(20만원) / 공공 병원 - 을(순이익 - 40만원)
- 2) 따라서 [공공 도서관 순이익 = 30 + 20 = 50만원] > [공공 병원 순이익 = 40만원]이므로 공공 도서관이 건립될 것이고, [갑]과 [병]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순이익이 공공 병원보다 작아져 공공 도서관의 공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두 사람 모두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 세금을 내게 될 것.

-> 따라서 정답은 ④이 되겠네요.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30만원 < 40만원) or (20만원 < 40만원)]이 되므로 공공 병원이 건립되었죠. 따라서 둘은 모두 공공 도서관의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①
->갑이 없으면 공공 도서관은 건립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이 중추적 사람이고 추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②
->을이 있든 없든 공공 병원은 건립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을은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③
->병이 없으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었겠죠. 이 말은 반대로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따라서 병은 공공 도서관에 공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 도서관 설립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게 되겠죠.

⑤
->또한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금은 달라지는 건 적절하죠.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 건립비용이 [300만원]이면 [갑 / 을 / 병]이 있을 때는 각각 100만원씩 지불하다 한 명이 없어지게 되면 둘이서 [200만원]씩을 내게 될 테니까요. 다만 을은 중추적 사람이 아니에요. 중추적 사람은 비용 부담금이 달라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재의 공급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죠.

24번 : ④

->클라크의 조세 방식에 따르면 공공재의 비용 부담금은 공급 비용을 인원수로 나눠서 동일하게 책정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부담금이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①,②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하기 어려움(=①) -> 공공재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의 조세 방식 ->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되게 = 속일 필요가 없게 함(=②)]의 흐름을 기억했다면 바로 소거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늘 말하지만 문제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배경에 더 주목을 해주시면 봐야합니다. 해결책은 그러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니까요.

③
->클라크의 조세 방식은 [공공재 ->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제한X ->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⑤
->클라크의 조세 방식은 [비용 부담금 + 추가 세금 = 개인이 내야 할 세금 총액]이라고 했죠. 적절해요.

25번 : ①

->[① : 어떤 일이 생기자]

②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

③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④
->[위로 솟거나 부풀어 오르다]

⑤
->[자연이나 인간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

32번 : ④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은 제시가 되었어요. 다만 그러한 [근육들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근육들의 내부 구조라는 것은 그러한 근육들을 이루고 있는 구조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근육의 움직임 -> 흉막강의 부피 변화]정도만 제시되었죠.

① ->호흡 과정에서 [폐의 부피 변화 증가 or 감소 -> 폐포압 변화 -> 폐포압과 대기압의 차이 -> 공기의 흐름]이라고 했죠.

② ->호흡의 정의는 1문단, 호흡계의 구성 요소는 2~3문단에서 제시가 되었죠. 왜 그러한 내용이 제시가 되는지만 파악했다면 쉽게 소거 가능해요.

③ ->호흡 시 발생하는 공기 흐름의 원리는 [보일의 법칙]이 아니죠. 공기의 흐름의 원리는 [기압이 높은 곳 -> 낮은 곳으로 흐름]이었어요. 그러한 기압 차이를 만드는데 작용하는 원리가 보일의 법칙이구요.

⑤ ->호흡과 관련된 압력으로는 [폐포압, 경폐압, 흉막 내압]등이 있었고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4~6문단에서 서술했어요. 적절해요.

33번 : ④

->제시된 개념 간의 관계를 묻는 거죠. 폐를 복부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횡경막]이었죠.

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흉막강이었고, 흉막강은 두 개의 흉막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했죠. 그 두 개의 흉막 중 안쪽의 흉막이 폐와 붙어있었고, 바깥쪽 흉막이 흉곽벽과 붙어있었죠.

② ->폐는 흉막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흉곽에 의해서 보호된다고 했어요. 적절해요.

③ ->[산소 -> 기관 -> 기관지 -> 폐포 -> 기체 교환 -> 기관지 -> 기관 ->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적절해요.

⑤ ->기관과 기관지를 거친 공기는 체온만큼 따뜻해지고, 습윤해지고, 이물질이 걸러져 폐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해요.

34번 : ③

->㉞은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겠네요. 이 지점에서 [흉막 내압은 최저 -> 폐의 부피는 최대 / 폐포압 = 대기압 -> 공기의 흐름X]라고 했어요. 따라서 ㉞에서 폐의 부피가 최대이고, ㉞보다 흉막 내압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흉막강의 부피는 ㉞보다 큰 지점이라고 봐야 적절하겠죠.

① ->㉠을 보면 폐포압이 0인데, 각주를 확인해주면 대기압 역시 0이죠. 따라서 ㉠은 흡기와 호기의 중간지점이고, 폐포압과 대기압이 같으므로 공기의 흐름이 없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 흡기가 시작된 후의 지점이므로 [㉠] -> [㉡ : 흉곽 확장 흉막강의 부피 증가 -> 흉막 내압 감소 ->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은 공기의 흐름이 없으며, ㉠보다 흉막강의 부피는 작으며, 흉막 내압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② ->㉠은 흡기의 중간 지점이고, ㉡은 흡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흉막 내압은 [흡기]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했으므로 ㉠이 ㉡보다 흉막 내압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지문에 따르면 흡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로 유입된 공기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 ㉡보다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④,⑤ ->㉡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공기가 폐에서 대기로 나가면서 흉곽이 축소되고 있겠죠. 호기의 과정에서는 [흉곽의 축소 -> 흉막강의 부피 감소 -> 흉막 내압의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은 ㉠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흉막강의 부피는 작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은 호기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 -> 흉곽의 축소 -> 흉막강의 부피 감소 -> 흉막 내압 증가 -> 경폐압 감소 -> 폐의 부피 감소 -> ㉢]가 되겠죠. 따라서 ㉡은 ㉢보다 흉막 내압은 낮으며, 폐의 부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35번 : ②

->[㉡ : 흡기가 끝나는 지점] -> [㉢ :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흡기가 끝나고 호기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주면 되겠죠. 호기의 시작은 [횡경막과 늑골의 변화 -> 흡기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 -> 흉곽이 축소]되면서 시작한다고 했죠. 따라서 지문에서 흡기에서 제시된 횡경막과 늑골의 변화 방향과 반대인 [횡경막은 이완, 위로 상승 + 늑골은 아래쪽과 안쪽으로 변화 -> 흉곽의 축소]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36번 : ①

-><보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주면 됩니다.

[사례]

1) A씨는 외상으로 인해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 -> 흉막 내압이 변화하다가 -> 현재는 외부에서 흉막강으로의 공기 이동X

->흉막 내압이 변화하다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흉막 내압이 변화 -> (흉막 내압 = 대기압)]이 소리죠. 그런데 지문에서 흉막 내압은 원래 아대기압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흉막 내압이 변화해서 대기압과 같아졌다는 말은 위에서의 흉막 내압은 증가했다는 말이 되겠죠. 즉 [흉막강의 공기 유입 -> 흉막 내압이 증가 -> 아대기압의 범위를 벗어나 -> 대기압과 같아짐]이 현재의 문제 상황이라는 게 되겠네요. 이렇게 흉막 내압이 증가하게 되면 경폐압이 감소하게 되고 탄성 반동으로 인해 폐의 부피는 감소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학생의 반응을 해결하러 가보면 학생의 말대로 현재 A씨는 흉막 내압이 증가하여 [㉞ : 흉막 내압 = 대기압] -> [공기의 흐름X]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경폐압이 감소해 탄성 반동보다 작아져 폐는 쪼그라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흉막 내압을 다시 [아대기압]의 범위로 내려야하겠죠. 따라서 상처난 부위를 막고, 흉막강 속의 공기를 제거하여 [흉막 내압 감소 -> ㉞ : 경폐압을 증가 -> 경폐압이 탄성 반동보다 커짐 -> 폐의 부피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①이 되겠네요.

[염상섭 - 탐내는 하꼬방]

작품해설 : <보기>를 통해서 감상해주셨으면 됩니다. [상황 :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 /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모습 + 그들의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 [인물 :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 = 박일성 반장 내외]정도로 파악하고 읽어주셨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간의 관계와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인물들의 심리나 태도 등에 주목해 주었다면 대부분의 선지가 거기에 해당하므로 빠르게 소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6번 : ①

->지문의 [검박한 속에서 자취도 없이 다가오다가 박일성이 말을 건다 -> 조고만 체통에 비를 쪼르르 맞은 행색은 쪽제비 같고 삽살개 같으나 캄캄한 속에서 반짝이는 눈은 올빼미 눈 같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소설에서 이러한 인물의 외양 묘사는 단순히 외양 묘사가 아니라, 해당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읽어가면서 [인물]과 관련된 성격이나, 특징이 묘사되거나 제시되는 부분은 선지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 번만 주목하고 인식해주시면 빠르게 선지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②

->[서술자의 교체]가 적절하지 않죠. (중략)을 기준으로 (중략) 이후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도입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필준이택의 남편이 잡혀가는 사건이요. 다만 (중략) 전, 후로 서술자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로 고정되어 있죠. 또한 이러한 외부 서술자의 경우에는 늘 말하지만 작품 내부의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려 서술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도 [필준이택]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었어요. 즉 [작품 외부의 서술자 -> 필준이택 -> 작품 내부 사건 서술]이 이루어지는 거고 독자들은 마치 필준이택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소설을 읽을 때는 이러한 서술자를 파악해주고 외부 서술자의 경우 특정 인물이 설정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인물들의 관계, 심리나 태도 등을 파악하는 게 수월하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기 수월해지니까요.)

③

->선지의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중략) 이전, 이후 모두 1개의 사건만이 서술되고 있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병치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병치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장면 전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지문에서는 장면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었어요.

④

->선지의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이 적절하지 않죠.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떤 소재나 계기를 통해서 작품 내부의 인물이 [회상]등을 하게 되고 그러한 회상 내의 사건이 내부 이야기로 삽입되어 전개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역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의 전환을 동반하는 장면 전환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⑤

->인물의 내적 독백은 소설에서 “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인물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기보단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해주고 있었죠. 또한 인물 간의 갈등은 [필준이택 vs 박일성반장 내외]와의 갈등이 될 텐데 제시된 지문에서 해소되지 않았죠. 지문 마지막의 진숙 어머니의 발화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니-]”에서도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해요.

27번 : ②

->선지의 [인민군 치하에서 평평거리고 사는 박일성을 보며 속으로 웃는 진숙어머니]의 모습은 지문의 [너 같은 빨갱이도 그런 줄이나 아는구나 하고 필준이택은 속으로 웃자니까]에서 확인 가능해요. 다만 이러한 모습은 [박일성]에 대한 [진숙어머니]의 [부정적 태도,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적절하지 않아요. 인물 간의 관계, 사건이나 다른 인물에 대한 인물의 태도 등은 선지에서 빈출되는 부분들이고 고등 교과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작품을 읽어가다 때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인물 관계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을 주목해 주었다면 조금 더 빠른 선지 소거가 가능할 것 같네요.)

①

->[박일성 :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맬기구 가시구려” -> [필성이택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 필준이택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 언성을 녹여 사정을 하였다 -> “혼잣손에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작자만 나서면 팔아 버릴까 하는데.....”] -> [박일성 : “글쎄..... 그래 얼마나 받으시게?”] -> [필성이택 : “하꼬방만 ~ 십오만 원은 받을까 하는데요?”]에서 하꼬방 값을 흥정하기 위해 언성을 녹여 사정하는 진숙 어머니(=필준이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보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모습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적절해요. 늘 말하지만 문항은 가용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선지를 소거하는 논리 싸움입니다.

③

->무조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중략 줄거리는 그 이후의 줄거리를 위한 단서들이 많이 제공되고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뒤의 내용을 읽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필준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가 -> 집으로 도망쳐 비밀 지하실에 숨어 지냄 -> 이를 박일성이 눈치 채 -> 반장택이 내무서원과 인민군을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침]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줬어야 해요. 그걸 파악하고 “[지하실은 어디야?” -> 그 거센 목소리로 무덤 속같이 조용한 밤공기를 휘저어 놓는다]를 읽어준다면 이는 <보기>의 감상과 같이 필준이택과 필준이라는 [개인의 삶이 위협 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충분히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④

-> 해당 장면에서 인민군은 필준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지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에서 다다미를 들어내는 행위를 반장 여편네가 거드는 것은 반장 내외가 진숙 어머니(=필준이댁)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아마도 반장 내외는 하꼬방을 차지하기 위해 진숙 어머니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애초에 제목도 [탐내는 하꼬방]임. 누가봐도 탐내는 듯.

⑤

-> 해당 부분은 필준이가 인민군에게 걸려서 잡혀가고 난 뒤에 진숙 어머니(=필준이댁)이 아이들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와서 울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보기>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박일성 내외)로 인해 -> 개인(=진숙 어머니)의 삶이 위협받고 + 가족 공동체의 삶이 파괴됨 -> 이를 통해 비극적 삶이 부각]된다고 보기에 충분하죠. 적절해요.

28번 : ②

-> [박일성 : “㉠그까짓것(=하꼬방) 볼들구 앓았어야 세금은 점점 오르구...” -> “한 오만 원이라면 내가 살까!”하고 썩 웃는다] -> [필준이 내외가 건어 불이고 나서서 하꼬방 하나를 다섯 식구가 뜯어먹고 사는 것을 보고, 저희(=박일성 내외)는 살빼금 광복 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멍멍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 제가 사겠다는 말도 실없는 소리가 아닐 것 같기는 하다]에서 확인 가능하죠. ㉠은 박일성이 필성이댁을 염려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필성이 댁의 하꼬방이 부러워서 탐내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주어진 발문 외에 주변 발문을 통해서 해당 인물의 발화의 의도나, 담긴 심리, 태도 등을 파악하는 빈출되는 선지 유형이었죠.

①

-> [필준이댁의 말에는 역시 가시가 품겨 있었다 + 필성이댁 : “그런데 하꼬방은 꼭 헐라는 건지요?” + 이 남자와 다시는 인사도 어울리기는 싫었으니 당장 급한 사정이라 말을 돌렸다] -> [박일성 :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가시게 될 텐데 그까짓 하꼬방쯤 내게 맵기구 가시구려.] -> [필준이댁 : “가긴 어딜 가요? 누가 가라 마라 해요?” -> 필준이댁은 발끈하며 핏대를 돌리다가 ~]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필준이댁은 박일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죠. ㉠은 하꼬방을 자신에게 주고 가라는 박일성의 말을 들은 필준이댁이 발끈해서 한 말이죠. 따라서 필준이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박일성의 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③

-> [중략 줄거리]를 통해서 (중략) 이후 부분은 내무서원이 집으로 도망친 필준을 찾으러 필준이댁의 집으로 들이닥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내무서원 : “지하실은 어디야?”] -> [진숙 어머니 : “이 동네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 [내무서원 : “마루 밑에 없으면 다다미 밑이라도 꺾겠지?”]를 통해서 내무서원은 필준이가 다다미 밑에 숨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다미 밑을 뒤지죠. 그런데 [다다미를 들어내고 널빤지를 벗긴 뒤에 회중전등을 비춰보아야 별 수는 없었다]를 통해서 다다미방에 필준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의 [김이 빠져 머쓱해진 내무서원] 자신의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해 머쓱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잠자코 온돌방을 거쳐 삼조 방으로 뚜벅뚜벅 건너간다]에서와 같이 필준을 찾기 위해 집을 뒤지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④

-> ㉠ 앞 부분을 보면 내무서원과 박일성 내외는 필준이를 찾아 다다미를 뒤졌지만 없어서 인물들은 온돌방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온돌방으로 들어서니 벌써 남편(=필준)의 기어 나오는 허연 그림자가 눈에 힐끗 띈다 -> 진숙 어머니의 반응 : ㉠]이므로 남편이 내무서원에게 발각된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필준이댁은 ㉠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은 진숙 어머니가 자신이 걱정하던 상황, 즉 남편이 발각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고 보기에 충분해요.

⑤

-> 필준이는 해당 부분에서 내무서원에게 발각돼 잡혀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내인 진숙 어머니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필준의 발화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 = 내무서원에게 걸려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한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가) [조지훈 - 동물원의 오후]

작품해설 : <보기>가 없었어요. 주어진 만큼만 작품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보니 [동물원의 오후]가 아마 이 시의 핵심 제재가 되겠네요. 1연을 보면 화자의 정서는 [시름]이고, 화자는 동물원으로 가네요. 왜 그런지 당연히 몰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2연을 보면 화자의 정서는 [시름 -> 슬픔]정도로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화자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하소연하기 위해 동물원에 갔다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네요. 3연을 보면 화자의 정서를 촉발시킨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죠. 바로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에서 드러나요. 즉 화자는 숨어서 시를 써야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시를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슬픔이라는 정서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슬픔을 하소연하기 위해 동물원에 가서 동물에게 시를 읽어주고 있네요. 4연을 보면 외부 세계를 내면화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드러나죠. 화자가 동물원의 철책 안에 갇힌 동물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거꾸로 표현했죠. 자신이 갇혀있다고요. 그리고 이방의 짐승들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하네요. 5연을 보면 명확하게 화자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바로 [나라 없는 시인 = 화자]가 되겠네요. 아마도 그래서 시를 읽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시름 + 슬픔]겠죠. 6연을 보면 사람이 없는 동물원의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죠. 화자는 앞서 자신이 갇혀있다는 것과 같이 [동물 <-> 화자]가 전도된 위치에 있다고 말하며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도된 표현이 위에서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낙조를 보면서 [통곡과도 같은]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 정도에만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되겠네요. 결국 정리하면 [화자의 상황 = 나라 없는 시인 + 시를 숨어서 씀 + 읽어줄 사람이 없음 -> 동물원에 갇] + [화자의 정서 = 시름, 슬픔, 통곡]정도를 파악해주셨으면 되겠죠.

(나) [김현승 -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작품해설 : <보기>를 통해 감상해주었으면 됩니다.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의 핵심은 이 시의 [과실 밤 = 시간 밤 -> 중첩 -> 시적 의미로 "성장"을 의미]한다는 거고, [시간적 배경인 밤 = 감상의 시간] <->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같은 대비가 나타나며, [감상의 시간인 밤 + 먹는 밤 -> 중첩 -> 시인의 창작 능력 배가]라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배가는 앞서 말한 [성장]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더욱 좋구요. 여기에 맞춰서 읽어보면 1연은 [과실 밤 : 과실의 밀도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룩] + [시간의 밤 : 고요하다]의 중첩된 표현이 드러나며 밤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죠. 2연은 그런 밤에 자고 있는 화자의 자식들의 모습이 되겠네요. 3연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결국 화자가 별을 본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죠. 지금 배경은 [밤]이니까요. 즉 아마도 밤하늘에 별이 떠있는 모습을 표현한 게 되겠죠. 4연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시가 쉬울 수도 있어요. [밤 = 시인 = 해체나 분석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움] -> [밤은 -> 시인들을 상상의 나래로 이끌어줌]인데 [해체나 분석]은 아마도 <보기>의 [이성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밤과 시인들은 그런 것에 무디다고 하죠. 따라서 이는 <보기>의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적 배경으로의 밤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밤은 상상의 나래로 저들을 이끈다는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 + 창작 능력을 배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주어진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5~6연은 [꽃 -> 열매 속에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 [밤 -> 시간이 새벽으로 향하여 -> 밤의 껍질을 탈피해 할 줄을 안다]이므로 마치 [밤]이 시간이 새벽으로 향하게 해서 밤의 껍질을 벗고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이는 <보기>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시를 정리하면 <보기>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상황 : 밤]이고, 그러한 [밤에 대한 화자의 인식 -> 과실과 시간적 배경의 중첩 사용 -> 시적 의미인 성장을 드러냄]이네요.

29번 : ④

->쉬웠어요. 시력 검사 수준의 문제. (가)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나)에서는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에서 확인 가능하죠. 당연히 이렇게 말 줄임표를 사용하면 여운을 남기게 되겠죠.

①[유사한 통사(=문장) 구조의 반복]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않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적절한 선지로 나올 때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편입니다. 확인해줄 때 내용이 아니라, 조사나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의 반복을 통해 [차이를 동반한 반복 = 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러한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서 반복되면 [대구]라고 본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②[반어적 어조], [역설]

->반어적 어조란 표면적인 표현에는 모순이 없으나 [표면적 의도 <-> 발화자의 내면 의도]일 때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늦은 학생에게 [“참 일찍도 왔다”]라는 말을 한다면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없지만 발화자의 내면 의도인 [“정신나감? 이제 옴?”]를 반대로 표현한 게 되는 것이고 반어적 어조가 되겠죠.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역시나 발화자의 내면 의도를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함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역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어가 [표면 <-> 내면]의 모순이었다면, 역설법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배우는 예시로는 [소리없는 <-> 아우성]정도가 있겠네요. 역설은 크게 나무꾼 [표현상의 모순]과 [시적 의미상의 모순]이 있어요. 앞의 사례와 같이 겉으로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것들은 대부분 표현상의 모순이고, [겨울은(부정적 이미지) = 강철로된 무지개(=긍정적 이미지)]와 같은 게 [시적 의미상의 모순]이 됩니다.

③[수미상관]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수미상관은 말 그대로 [머리 수 & 꼬리 미] 즉,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면서 대응, 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죠. 같은 표현으로 [수미대응, 수미쌍관]등이 있어요.

④[설의법]

->설의법은 질문으로 행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의문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평서문으로 바뀌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답정너라는 거죠.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몹시 가련하네용]과 같이 답은 정해져있는 거죠. 설의법 역시 발화자의 정서나 내면 등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의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30번 : ⑤

->(나)에서 [꽃들이 지고 -> 열매가 핏 -> 화려한 자태를 감춘다고 표현]은 [밤 -> 새벽]으로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었죠. 따라서 [밤]이라는 대상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게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힘들죠. [꽃 -> 열매]로 이어지듯 [밤 -> 새벽]으로 시간이 이어지잖아요. 또한 <보기>를 통해 해당 구절을 이해했다면 [삶의 유한함]보다는 껍질을 탈피한다는 표현을 통해 [성장]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아요.

①

->(가)에서는 [쇠창살, 철책, 창살 등]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사용되었으므로 (다)의 제시된 내용처럼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 중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이미지가 형상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②

->(가)에서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표현은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으로 보기 충분하죠. 또한 실제로는 화자가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고 있는 것을 동물들이 자신을 본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대상 = 동물원의 동물들]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③[상승과 하강이미지], [화자의 정서 투영, 감정 이입]

->[낙조 = 저녁에 지는 햇빛]이죠. 따라서 해가 지는 것은 [위 -> 아래]로의 움직임이 드러나므로 충분히 [하강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상승, 하강 이미지]에서 기억할 것은 단순히 위에, 아래 있다고 상승과 하강이 아니라, [아래 -> 위 / 위 -> 아래]와 같은 [움직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별 = 상승이미지]X / 해가 나래를 펼치고 떠오른다 = 상승이미지O와 같아요. 또한 해당 부분을 보면 [통곡]과도 같은 낙조라고 했는데 낙조를 본다고 모두가 통곡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이러한 [통곡]이라는 정서는 낙조를 보면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거죠. 따라서 [통곡]과도 같은 낙조 -> 하강적 이미지 -> 비통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④

->별들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는 표현은 [별]이라는 친숙한 대상이 떠 있는 모습을 그냥 [밤하늘에 별이 떠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낯설게 표현한 거죠. 따라서 이는 (다)의 이미지의 신선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를 통해 결국은 그냥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형상화한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밤이고 별이 떠 있는 걸 표현한 건가 보다]정도만 생각해도 지워줄 수 있는 선이었죠. 깊게 묻지 않아요. 풀지 마세요.

31번 : ②

->선지의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죠. 어린 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 라는 표현이 감성이 위축됨을 드러낸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보기>에서 [밤 =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 + 창작 능력이 배가 되는 시간]이라고 했으므로 <보기>에 따른 감상이 아닌 거죠. 늘 말하지만 <보기>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별하는 연습을 하고,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어디일지, 그리고 그 논리가 적절한지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①

-><보기>에서 [시간적 밤 + 과실의 밤 -> 중첩]이라고 했는데 (나)의 1연을 보면 [밤 -> 과실의 밀도처럼 + 달도룩(과실의 이미지) -> 고요하다(시간의 이미지)]라고 했으므로 과실과 시간이 중첩된 이미지라고 판단하기 충분하죠. 적절해요.

③,④

->[밤&시인 : 해체나 분석]에는 무덤 <-> 밤 : 상상의 나라로 시인을 이끄는 것]과 같이 [해체나 분석 : 밤이 무덤의 것 <-> 상상 : 밤이 시인을 이끄는 것]의 대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를 <보기>와 연결하면 [이성적 사유의 시간 <->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의 밤]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즉 [밤은 -> 저들(=해체나 분석에는 무덤 시인)들을 -> 상상의 나라로 이끌어줌] = [<보기>의 밤이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배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두 선지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네요.

⑤

->[꽃 -> 열매] = [밤 -> 새벽 = 껍질을 탈피]한다고 했고, 시간적 배경이 과실의 밤과 같이 껍질을 탈피하면서 새벽이 된다고 표현한 거죠. 이는 <보기>의 [과실이 지는 속성과 가치(=껍질을 탈피)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밤이 -> 새벽이 됨) ->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 강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해요.

[2018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37~41번]

(가) [정훈 - 용추유영가]

(나) [장경세 - 강호연군가]

[현대어 번역]

<제1수>

맑은 하늘에 달이 밝거늘 거문고를 비스듬히 끼고,
난간에 기대 앉아 양춘곡을 연주하니
엇더타, 입을 향한 시름이 곡조마다 나타나는구나.

- 양춘곡 : 양춘곡이란 생기발랄한 봄 풍경을 표현하는 곡
- 타운 + 마리 : 타니. [마리]는 보통은 동사 뒤에 붙어 뜻을 강조하는 영탄적 표현으로 사용됨.

<제3수>

시절이 하도 심상치 않으니 내 마음을 둘 데가 없구나.
국가의 증신들도 예전처럼 있고, 신하들도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서로의 분쟁은 여기저기 끊이질 않으니 그것을 몰라 하노라.

- 교목 : 교목은 보통 중요한 대신이나 증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6수>

송옥이 가을을 만나 무슨 일이 슬프던가
차가운 서리와 흰 이슬은 하늘의 기운이라
이 나의 남은 저 근심은 봄 가을이 따로 없구나.

- 송옥 : 중국 전국시대 초(楚) 나라 사람. 굴원의 제자. 관련된 고사로는 송옥이 스승의 죽음으로 슬퍼했다는 이야기 -> 송옥에 빗대어 근심을 느끼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9수>

공자와 맹자의 학풍이 내려와 주희에게 다다르니
정밀하고 자세히 글을 배움은 마음을 올바르게 깊이 연구함과 함께 일렀도다.
엇더타, 강서의론은 왜 그를 지루하다 했던가.

- 강서의론 : 주희와 육구연이 강서에서 논쟁함. 주자학을 비판한 강서학파를 의미합니다. 즉 화자는 주자학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를 비판한 강서의론에 대한 심정이 드러나는 거죠.

<제11수>

대장부의 몸이 되어 굶주림과 추위를 두려워할 것인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나는 싫다, 덧없는 부귀를 따를 줄이 있겠는가.

<제12수>

훌륭한 임금을 얻는다면(훌륭한 임금에게 얻으면) 나아가 도를 행하는 것이 군자의 뜻이지만,
때가 어긋나면(훌륭한 임금을 얻지 못하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겨하네.
욕심 없는 송풍산월(소박하게 자연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인가 하노라.

37번 : ③[계절감을 드러낸 시어] -> [화자의 정서]

->(가)에서는 [겨울 / 백설]등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면서 [화자의 정서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나)에서는 [차가운 서리 흰 이슬, 봄, 가을]등과 같은 시어들을 통해서 각각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 근심이 계절과 상관없이 지속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다)에서는 [진달래도 아직 꺾어보지 못한 채 봄이 왔는데 -> 내 마음속 골짜구니에는 아직 얼음이 안 녹음]를 통해서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 : 봄이 왔지만 -> 자신의 마음은 얼음이 안 녹은 것과 같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해요. 해당 선지에서 단순히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시어를 통해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지까지 파악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결국 표현법은 화자가 드러내고 싶은 정서나 내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법들이니까요 ;)

④[의성어]

->의성어를 통한 생동감은 (다)에서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팽이 푸드덕 날면 -> 팽이 나는 모습을 생동감있게 표현]에서 확인 가능해요. 다만 (가)와 (나)에서는 없었으므로 공통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②[고사활용] / [반성]

->(가)와 (나)에서만 [고사]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고사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해당 부분이 고사임을 알 수 있게 [각주]를 달아줄 수 밖에 없어요. 고등학생이 고사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고사의 활용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 내면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 시가 작품 중 자연에서의 즐거움, 만족감을 나타내는 작품에서 이런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그러한 고사 속 인물 역시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누린 인물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인물보다 현재 자신이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만족감이나 즐거움 외에도 이별로 인한 슬픔, 근심 등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그러한 고사 속 인물과 현재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가)에서는 [맑은 물 귀 씻으니 허류를 내 부러워하라 -> 맑은 물에서 귀 씻으니 난 허류가 부럽지 않음 -> 내가 더 즐거움]과 같이 자신의 현재의 만족감을 강조하기 위해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고 있죠. (나)에서는 [송옥이 7을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에서 각주를 확인하면 고사 속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관련된 고사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옥 -> 슬프던고 -> 나도 근심이 있음]정도만 파악했으면 됩니다. 즉 고사를 활용의 근심이 있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따라서 (가)와 (나)에서 모두 고사가 활용되기는 했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만족 / 근심]이라는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다)에서는 애초에 고사가 없구요. 참고로 [반성 = 자신의 언행을 깊이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입니다.

④

->(다)에서는 순수함이 있던 과거와 그러한 순수함이 상실된 현재를 대비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가)에서는 [과거의 인물 <-> 자신을 비교 -> 자신의 만족감 강조]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근거로 잡지 말고, [삶의 무상감]을 명시적 오답의 근거로 잡아주셨으면 되겠죠. 삶의 무상감은 (가)~(다)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애초에 애매하게 구성된 선지에서 고민하지 말고 명시적 오답이 근거에 주목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38번 : ①

->(가)의 [우할함(=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름 <-> 속세) 정신은 추위를 모름 -> 백설을 맞으며 설경을 보고 있는 화자 자신을 드러냄]이고, (나)의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이 두려울까 -> 일산 풍월에 즐거움이 끝이 없다 -> 장부의 몸은 자연에서 즐거운 화자 자신을 가르킴]이므로 모두 자연 속에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②

->(가)는 [내 부러워하라 = 안 부러움 = 내가 더 즐거움], (나)는 [고반 =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 -> 그게 나 뿐인가 하노라 -> 자연의 풍류에 대한 만족]이므로 적절하죠.

③

->(가)는 [냇숫대 드리우니 "칠라탄"과 엇더하고 -> 화자가 자신이 냇시를 하고 있는 곳과 엄광이 몸을 숨긴 동광의 여울인 칠라탄을 비교 -> 이를 통해 자연에서의 자신의 풍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나)에서는 [양춘곡 타온마리 님 향한 "시름"이 곡조마다 나느니 -> 양춘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님을 향한 시름이 노래의 곡조마다 나타남]이죠. 따라서 (가)의 냇숫대는 풍류가 드러나는 소재, (나)의 양춘곡은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④

->(가)를 보면 [공명을 생각하며 -> 빈천(=가난함)을 서러워할까 -> 서러워하지 않음 -> 공명에 대한 거리감]이고, (나)를 보면 [내 싫다 부운 부귀를 따를 줄 이시랴 -> 안 따를 것임 -> 부귀에 대한 거리감]이므로 적절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다 = 싫다]라는 주석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석을 준 이유는 해당 선지에서 [마다 -> 부귀 -> 부귀가 싫다 -> 부귀에 대한 거리감]을 파악하라고 제시해준 거죠.)

⑤

->(가)의 [이 계산 경물을 슬토록(실컷) 거르니고 -> 백 년 세월 노닐다가 마치리라 -> 계산 경물을 즐기면서 백 년 즐기다 죽을 것임 -> 따라서 계산 경물을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의 대상], (나)의 [일산 풍월에 즐거움이 가이(끝이) 없다 -> 매우 즐거움 -> 따라서 일산 풍월은 화자가 자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풍류의 대상]에서 확인 가능하죠. 적절해요.

39번 : ③

->선지의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죠. 6수의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가을이 없으라 -> 화자가 봄 가을 없이 근심하고 있음]이니까요. <보기>에서도 [때로는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했으므로 <보기>의 준거에도 맞지 않는 감상이 되겠죠.

①
->1수에서 [님 향한 시름]은 <보기>의 [때로는 임금을 잊지 못하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②
->3수를 보면 [시절이 하 수상하니 -> 마음을 들 디 없다 -> 시절이 수상해서 마음을 들 곳이 없음 -> 의론(=의논)이 여기저기 하니 -> 의논이 많음]이라고 했죠. 이는 <보기>의 [당쟁(=의론이 여기저기)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국(=시절이 수상하니) ->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마음 들 곳이 없다)의 고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해요.

④
->9수를 보면 [공맹의 적통이 느껴 주자께 다다르니 -> 공자와 맹장의 정통성이 주자에게 이르렀음] + [자세한 학문은 궁리 정심 나란히 일렀네 -> 앞서 말한 주자의 학문을 칭송하는 것]이고 이는 <보기>에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해요.

⑤
->12수를 보면 [득군행도는 군자의 뜻 -> 임금을 얻고 도를 행하는 게 군자의 뜻이지만] ->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을 즐겨한다 -> 앞서 말한 그러한 득군행도를 할 수 있는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자연에서 즐겁게 지내겠다]이고 이는 <보기>의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 -> 강호에 은거해 풍류를 즐기는 작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40번 : ④

->해당 부분을 보면 [서울로 올라오던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긴 것이다(=순수함을 잃음) -> 뱀은 내게 달려들어 술한 나쁜 지혜를 넣어주었다 ->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 (“나”가)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의 세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없었다]죠.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로 올라와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글쓴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순수함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는 힘들죠.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쉽네요.

①,②
->해당 부분은 <보기>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 + 그 체험 속의 풍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③
->지문의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내가 늘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림과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음을 썰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와 같이 화자가 산나물을 보고 고향 냄새가 난다고 했으므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불러일으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⑤
->지문의 [좁체 순수한 이 산나물 사람을 만나기란 요즘 세상엔 힘든 노릇 같다 -> 산나물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 -> 모두가 역세고 꼬부라지고 별레가 먹고 어떤 자는 사기까지 돌쳐 있다]와 같이 글쓴이가 순수한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의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41번 : ④

->(가)의 해당 부분을 보면 ㉓는 화자가 현재 풍류를 즐기고 공간으로 자신밖에 모르는 공간이라고 하죠. 이는 ㉓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나)의 해당 부분을 보면 [나' -> 서울로 올라오면서 -> ㉔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 뱀이 나쁜 지혜를 넣어줌 -> 자신도 때가 탐 = 순수함을 잃음]이라고 했으므로 ㉔는 순수하던 시절의 화자와 관련이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㉓와 ㉔ 모두 화자가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적절해요. 이렇게 어떤 소재에 대한 화자나 인물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주변 발문을 통해서 그러한 태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니 쫓지 말고 주변 발문의 논리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작자미상 - 옥주호연]

42번 : ⑤[공간의 이동]

->지문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묻는 거죠. 이런 걸 놓치면 답이 두 개로 느껴지거나 헷갈리게 되는 거죠. 문제의 발문은 항상 꼭 잘 확인해주도록 해요. 해당 부분은 [양인(명주 + 최완)이 본진으로 돌아와 거짓 행복한 이유를 말함 -> 최완은 원양성 원양성 복문에 매복 -> 원양성에 들어가 수성장을 빼고 장임을 막으라 함 -> ~~~ 등]과 같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긴박감을 조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죠. 적절해요.

①
->[대전에 불을 질러 화강이 충천하는] 것과 같이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죠. 인물의 성격이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와 정서와는 다른 거죠. 타고난 성격이요. 이러한 인물들의 성격은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②
->[과장된 상황 설정]도 없고, [해학적 분위기 형성]도 없어요.

③[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 부정적 면모 비판]을 하는 부분은 없죠. 편집자적 논평은 평가원에 이의제기 답변에 따르면 [서술자의 개입]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편집자, 즉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심리, 정서 등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에 해당해요. 해당 부분에서는 없었어요.

④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없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서술은 [요약적 진술을 통해 -> 사건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해당하죠.

43번 : ①

->선지의 [복군의 승리]가 명시적 오답의 근거죠. [차시에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복문에 나아가 대호 왈 “우리 복한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하니 ->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 최완의 창을 맞아 죽으리라]를 통해서 한양은 최완의 진을 파악하지 못하고 복군으로 착각하여 원양 복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복군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대강 선지를 봤다면 아마 “답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지를 대강 봐서 그렇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놓친 것이 있나 발문을 쫓개서 다시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②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 용서치 아니 하리라]에서 확인 가능하죠. 유생은 삼소저가 무예를 익히는 것을 보고 부인인 왕씨에게 삼소저를 단속하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③
->[우리 팔자 무상하여 ~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④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기다리던 때를 얻게 됨)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에서 확인 가능해요.

⑤
->[양진이 상대하매 ~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와 같이 원견은 양인을 의심없이 믿는 장임에게 간언을 올리죠. 하지만 장인 양인(명주 + 최완)을 믿고 정성스레 대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네요.

44번 : ②

->삼소저가 언급한 장원 공주의 업적은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 이름이 지금도 유전하오니]에서 확인 가능하죠. 이러한 장원 공주의 업적은 무예를 배워 천하에 이름을 널리 알린 거죠. 삼소저는 이러한 장원 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며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나머지는 [지문의 내용] - [보기의 감상]의 논리 관계가 적절해요.

45번 : ④

->③은 [명주 -> 최완]에게 원양성 함락을 위해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면 ⑤는 양인(명주 + 최완)이 장임을 속이기 위해서 협력하는 척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정답은 ④이 되겠네요.